軍縮의失

南省行政을

要かりむい職からむ **人問題等**」

日告公會堂的人

学校学の任用から制度言語を対す、 (不理) でおいる (不理) では、 (不理) では、 (不理) では、 (不理) では、 (不理) では、 (不理) では、 (不理)

一、朝鮮人의親族相談が關立法一、高等法院が分民事上告事件一、高等法院が分民事上告事件の事實審理管督令の도롱民事会到政正会行資事(日縣)

検判事任用의制度宣設部事業成法의規定の単おの建設を開業との對かの主義判別鮮無機上の對かの主義判別

で成果)

担介のに制度言語言事

事實審理量が三三特個量體官が、民事令中民事訴訟事件同様

重要事項、決議が別から、中国で、古州) 地部者國吉州執行部準備委員がスプリシュ間準備委員談氏外次プリシュ間準備委員談氏外次プリシュ間準備委員談氏外次プリシュ間準備委員談氏が、対策を受ける。

の一般群衆のツ奥味量子の中国の市民運動會に去十九日の開砂の市民運動會に去十九日の開砂の市民運動會に去十九日の開砂の市民運動會に表十九日の開砂の市民運動會には、100円のでは、100円のでは、100円の 清津運動會盛况

一、民事令中民事诉讼其手利分部の以分合議로外おに各裁判所のと可成的朝鮮人判事量干與ハシ事(平譲)

取締の苦痛煙草反則者

、日鮮間の野党辯護士の共通資格会與宮事景帝県宮、清津)、朝鮮辯護士規則い依党辯護

一、民事令第二士條及第二十一『公州』

(=)

普級デ

四萬二千貫二萬八千八百三千元百萬實十四萬疆

必押

真七千五百東六千四百

本権登津支局を左列如可雙更おり、支局名称。

社

告

三二、元〇〇石(元三五、一〇一)出貨(ナー)出貨

薪

八十二萬五百貫七六、六四

0

木材 元四二、五〇〇木一大二 七五〇層

Ŧ

四萬二千九百叭八十一萬三

在 七千貫(三百五十層) 2 二千本 一千層 2 三千枚 九百國 二一、二〇〇叭二四四 栗大小 千厘

第一千石(十三萬二千

大

四萬五百石六十四萬九

六十二萬一千臟元萬二千八人 七十萬順一百八萬臟

真四千石 二百四

松業、八十二萬六千東
一六五、九四五百貫一四〇、一

胸器 十八萬九千個八四、貝類 五萬石一萬國

愛職諸位に願売하くたり如う局員を任用

0

其六千石三十二萬圖

龍岡石 三萬九千曜三千四百十大理石 一萬五千曜一萬五百圓

東西 八千石二千四百**個** 東瓦 五千二百萬個百四章

七

築港工事

七月中起工

朝鮮日報金津友局白駐心即者李石燦

元萬嶼四十萬國 四千嶼四萬國

本文局の分左外如り局員会任用本文局の分左外如り局員会任用

駐 在 記者

朝鮮日報城津支局白

立案中의

農業倉庫

二陟郡上長面の 人規模水電計 總工費四百餘萬圓。三 劃

002708 大倉庫宣利用が吐」と対小機足の大概が表示と大概が大力を強債が宣うと大概が大力を強債が宣うと大概が大力を受け、大概が大力を受け、大概が大力を受け、大概が大力を受け、大概が大力を受け、大概が大力を受け、大概が大力を受け、大概が大力を受け、大概が大力を受け、大力を使い、大力を受け、大力を受け、大力を受け、大力を受け、大力を受け、大力を使い、大力を受け、大力を受け、大力を使い、大力を受け、大力を使い、大力を使りを使い、大力を

本文局が分左外如う局員各任用本文局が分を対象を

イタリ 愛鰕部位 と照売する分 のの日 愛鰕部位 と照売する分 のの日 愛鰕部位 と照売する分

李 威南青聯盟

四個條項决議 郵便所設置保寧熊川市

新幹益山支會

咸鏡中部線

長湍郡郡内面邑内里小公川変讀諸位に照亮か公外

朝鮮日報北青支局 記記總 者者兼 自

分局員職氏名

お男外の日愛顧諸位七照先が全本支局の分左の如う分局会設門

4 市 巴宏壯 立室素肥料工物及都西北部三連 豆醚密 立森林会 眼 ○ 豆蔻總面理川里 言中心公 大規模의 製材工物等 多設計進 下 の 司 日 中 (二 昨)

来十九日設立 書設置おコ升勢力中の中ならJ既 場所線裡里の分新幹會盆山支會

大学音의規定等意事(全州) 一、辯護士가아닌者가辯護士同 課의業務量行하는者의取締量 取締方針等建議当事(日辯) 取締方針等建議当事「大邱」 下、辯護士가아닌者了相人의訴 監에關與하아利臺圖하는者의 取締方針等建議当事「大邱」 「辯護士가아닌者로外訴訟代 理言業으로하는者에게代理又 一、辯護士가아닌者로外訴訟代 一、辯護士가아닌者로外訴訟代 一、辯護士가아닌者로外訴訟代 一、辯護士가아닌者로外訴訟代

●成南教育會のメニタ年夏季講 中のコンロ期日の八月一日至早中のコンロ期日の八月一日至早 中のコンロ期日の八月一日至早 の一日の日本の別の日本常高

朝鮮日報長湍支局白

から。 から。 が任かB〈小の日 就位 に照亮 からが任かB〈小の日 就位 に照亮 際任하5分の1照亮的な分で記者が鑞別君の事情の依められます局記者供明翰君以方に対している。 朝鮮日報尚州支局白

朝鮮日報蔚山支局白

本支局の分左外如り職員会採用が改合の公司職者諸位に照亮が全 朝鮮日報羅州支局白 朝鮮日報扶安支局自

か8(小・2)「愛腹路位」と服免が全がある。 祀 者 李

一、朝鮮人間의親族科 成文法会制定包事(成果) 、民事令第十一條章改正하고 「民事令第十一條章改正하고」 「是都定名順替のと明白」

* @始與個人庭球大

會

廿六日(日)午前十時早日

主 催 朝鮮日報始興支局永登浦驛前始興郡廳코三에州

水道計劃 執行委員會

三陟邑內列

本支局的山面駐在記者金昌培と本文局的山面駐在記者金昌培と

朝鮮日報泗川支局自

朝鮮日賴裡里支局白

開催望台のかり次の影響の表彰式を

一、分局位置新 · 分司質能表了 北青郡新昌面利昌里

에

圓毛行嚢

世の客의田司の 鐘路大街의活劇 曹和나리하사

外
지
追
踪 **필름』을 红내 버리**

의파쇄를다시요구

涌快を學生 3 志氣

연기는 예비장 이슬베마다 춘기 금 종종의 교상

さなら(同窓館)のソクロ

南道

에

승으로평남경찰부에서 정입하얏다

げんからいている。 では、一人と 不せ○○むや

此裝警官數

石出動

〉평甘冶盐毕宁圣田

산송림공원(南山松林公園)에잇 는거연정(居然亭)의묘도업는정 자집에 부대人조각이로 겨우풍 이신음하는 가련한현상을 볼때 에누구나한줄기등정이업지못할 것이다이에잠간그슯혼내막을일 다보는 그는본원을 평남당원군

秋田縣大火

死傷者多數

そのかけるやないなる

損害百餘萬圆

물빗치 덤치 흥리는 함아를 안고 노래를 안고 노래를

있는지 모르겠소? 집 이라게 작음이름대답한 절사람은 색마층문안이로 지나가는한 은 색마층문안이로 지나가는한 이라는 불러돌았다 『역보 명진시 아층에 나왔는

미요 도 명진시 아침에 나왔다 지당차편에 명한을 들면보면의 이 잇쉬요? "

다 나왔소? 커해운시님이기다 행기 나왔소? 커해운시님이기다

보시요 그런기아니라 즉

덕천병원디

控訴公判

開廷

成告に警察のよ

定郡鶴城面雙浦洞

親父親兄。言亂打 **舎大かぞの口野島の**

술집어

鐵道工夫旨の

사용이시작되었는바 이것 사용이시작되었는바 이것 되었는바 이것 모습들이 친구 오면을로 등록로 무수한리하야기의족을로 무수한리하야기의족 보를 보는 사건 있는 사소(長湖院駐在所)에서는 一名輕傷

かた石間

나서대라부

장원도 산최군일대(江原道三) 이때오촌육하다는데 만일 이때 # # # 가 나리지아니하야 대소맥 민들은 더욱이나 잘당한풀병에 (大小變)의 열매가 충실치도못 하야 발쉬다발레버리고 그외의 충충하다 더라(산최) 현장들도 친부 시들어서 인진 충충하다 더라(산최)

모르는집에 가게되때 그물의다 용도매양 서름이 무희업성습과 등에게 보냈모친심씨는 눈물도 세월을보내며한숨이로모진목숨 왕다

行處な州居然事の

「かかい生みない」と、小型場の

지는 조고만초막에서 흘러나오 등에는 등분이아니라 바무레긴 이는 등분이아니라 바무레긴 이는 등분이아니라 바무레긴 이는 등분이아니라 바무레긴

커긔도 사람사는집이 있

의 말등은 여기있습리는업을 것이 나다 커는악가 고자동차자육을 전하게 가보고올라이나 당신으로 전기 말하고 자기지희이었는필요 주는 운단수까지 남자두고 속 자쉬 오른길로 돌아갔다

독 솔박사이로나라나는 희미한

파가 들어나보지요! 이 소부리업수들 번원히 알고차 마는 그래도 행역나소식을 알지 나온일업다 등는 필이할것도업지 나온일업다 등는 절사람의 말을

관계가업스나 류봉구는 상한자물진활한즉 생명 部巻(洪大喆) 火와ブラ (新田里)십육번다 (武國·도(共享) 道)(天)는 사원시장(沙川市場) 에서일이난 현병박살 (憲兵稷) 왕이나당의 지난이십산일에 평양다양의로부터 지난이십산일에 평양다양된 하용시의 주시평양복심 전도를 하용시의 주시평양복심 平壤憲兵撲殺犯 七年에不服控訴

斉人弱양早仏에み全

遺失全品が対アタ スプロション

지난달 금음부터 삼소(소)이가 무면히 현영두라는 무엇으로 지나는데에 전에서 눈코목뜨고 지나는데에 된 이가 멀리가라는 명영이 있다로 가려 참당한되고 살이어서는 단열병이라고 어때로 다음에서 그가리한을로 집을삼고 어디로 어디로 다음이 있는지 그구한운명을 한란하며 보다 가 어서워 보고 무너의운명을 한란하며 보다 가 어서워 보고 무너의운명을 한란하며 보다 가 어서워 보다지 그모녀의운명이 장아보고 그는지 눈물이는지로는

時期小時期임으로

· 동주(조州)에 느얼되었습의 나미기시작하야일반동가에 나미기시작하야일반동가에 老婦業死 충남홍창군 홍주 민물산리 (忠南洪城郡洪州面月 미里)장만선(張萬光)의모친 김 시는 지난이십일일 홍청장에오 바가 홍성읍당하나 이십일일 홍청장에오 마차서 일시 호도되었었는 다중단종(豫德田)이바흐도되고 이루이올다리고 홍주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양재식(楊在補)시에 자진함하야보통 사주일치료는

の子自然のなのや現金目の

女兒溺死

지난십산일오季한시경에간도화 향환자 전쟁 때 對岸豆滿江)에 엄청 한소녀의 시대하나이 있었는데 단당으한이십세가당되어보이고

豆滿江の漂屍

親弟逐出

郵便叫民衆叫의接觸

幕天席地呈 居然亭에서

門陽서도

평북장계청내(平北江界城內)는 正旅館)하더로보出고 차녀확실 호수가 이권역호에달한 응주거 (確實)(三)이보통학교교장의집 호수가 이권역호에달한 응주거 (確實)(三)이보통학교교장의집 는거면정(居然亭)의당도업는정 에게 차리난아이들가르면 무관 자집에 부대人조각이로 겨우풍 이지만 산골속에서질리난 아이 무관 이지만 산골속에서질리난 아이 보기되었다면 보 아들時이은심해나을수업고 立為个な人力的な人人 교德里)에잇는정모(職某)한자 는 생활이곤난하다고 자그의동 생소자(小者)여밀살되어린것을 내어또於습이로 어린것이 한자 이 울먹이 어지가는것을 어떤사람이 바가 곱하고 있을 어떤사람이 바가 곱하고 있을 어떤사람이 라고한즉 형이 몸시따리 어린것을 무기지고 있는 집이모들이 일반으는 누구나 욕하지 안는사람이 일반으는 누구나 욕하지 안는사람이 일반으는 누구나 욕하지 안는사람이

이십산일오건구시에공산하 (韓文洋行目幽車)케일호가 를 향하여 진행하드조아씨 (리가치 당하사 하얏다 논데

구세소녀가

当是各门内 圣时以之间外刀 计时开它 多其个可是 刀만刀만可 달알에 좋고있는 조 고만초막에는었던사

소막에서는 가느단 노래가홀리 나왔다 잔잔히 잔잔히우리나오 는노래를 들이며 벙하니셨든고 는마층내 귀로만 만족지못하고 등하주름이로 그집안을 들여다 나와트웨이 있소? 그

程에 자동차기 谷山目お上る

智心的的品 旨のの名

8고시님한분이 편치인 의사량반이 자동차들리

물 나오라구 명한불편보낸이가 무 나왓셨습니다」

淋漓な怪屍體

이십시의 오건두시반전에 의 (清水町)등각번화한대건물만약보주권현 로기당 해암당 (秋田 이백수십호를래오주몽여첫시경 퇴어나써마층맥결하부근바람에 성당하만희모양이로소해근백수십시간불권의 사방이로 등급취 십만원에달희못하다 달라 상하주권당(上下酒田町)청수정 中川【魔計】(八) 華羅雲奎撮影監督 (禁無斷撮影與行)

무子七轉報乞食하당한이 보조디로돌아간후 사년 등안이나 한푼의미원이업시 참아모 하려한즉 하는수업시 참아모

宁省是人家下女豆

태규 크자도봇한 자기머리를봇 "는병인업나 이대로 다라나버린 물고 지혜를 잇는대로짓보았다 대쉬는 그놈들을 한보도록멀리 대기라면 이모을 한지 되기는법 몸을 피하기된에는 백일수 업을 자기의 항원도 니커버리고성든 라규는 비로소정신이 난드시 테를 가보아야지 엇다가감출가 하구 커솔빗되어있는 바위미레 다가파무지 매시를 자세히 돌려 보고 지금을라온건을 다시한번 되돌어보고 솔빗을 돌아나와 휴 가지지 의학일나무개비를 주어 가지고 크다란바위미트로 가서 사면을 회회들되보고 분수 가서 사명을 회회들되보고 분수

의로 들어갔은 명진인 大き아나와서 손님을 다리고 명원의 방의 로등어갔다 選 轉 手 …… 黄成選 懸淑의父……李錦攬 장오는 명진을봇잡고 자기가지 자온요당을 간단히말했다 자기가들어 기 용정보구나올레니트명일의 바

弘松克와 医中世 不是於理事的 오돈길로 산으

1 永田 0 三打 1 9 整件 (000002020-4 簡(0000000000-0

명 소사오르는 약으의에무를을 사사오르는 약으의에무를을